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45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특 문학 현대소설 02 p.162~165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완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 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 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만은 딸이 듣기에도 판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 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완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히 캐어물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완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일 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오십 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하였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 회사에 넣고 삼천 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시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뻐했다.

“서 참의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굴이 널 지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네깃 놈이 천생 가래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 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일 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꽤 나오는 노염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삼천 원의 순이익이 오륙만 원은 될 것이라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라 하는 타협이 생기어서 안 초시는 으실으실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나섰다.

*

일 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삼천 원어치 **똥** 을 사 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향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삼십 배가 올랐느니 오십 배가 올랐느니 하고 **줄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
[A] 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향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일 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려 들어갈 수도 없었다.

①“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서 참의가 실의에 빠진 안 초시를 위로 하지만 결국 안 초시가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을 발견한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 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 ㉠“아니야요 아스세요.”

딸은 필쩍 뛰었다.

“아스라니?” / “저…….”

“저라니?” / “**제 명예도 줌…….**”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엘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루 세상 떠나게 해?**” / “…….”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 참의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 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루 할까?” / “네.”

서 참의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해 보험 든 거 있지?” / “네, 간이 보험이야요.”

“무슨 보험이던…… 얼마나 타게 되누?” / “사백팔십 원요.”

“부친 위해 들었으니 부친 위해 다 써야지?” /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사썰 입구퍼 했어. 상등 털 사쓰를 사다 입히구 그 우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마쳐 짓게 허구…… 선산이 있나 묻힐 데가?” /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루 널찍하게 사구……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 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게야. 알아들어?” / “네에.”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

안 초시의 소위 영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 참의와 박희완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갔다. 박희완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 원을

서 참의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꺾꺾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 참의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울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 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험…….”

하더니 조사(弔辭)를 하였다.

“나 서 참의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 보겠나? 인젠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턴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 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흠…….”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 이태준, 「복덕방」

*청장(淸帳): 장부(帳簿)를 청산한다는 뜻으로, 빚 따위를 깨끗이 갚음을 이르는 말.

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회상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특정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의식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중심인물이 겪은 사건의 전모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입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2.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변 모 씨는 축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땅’을 샀었다.
- ② 박희완은 안 초시에게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전해 주었다.
- ③ 안경화는 연구소 집을 담보로 하여 ‘땅’을 매입하기 위한 돈을 신탁 회사에서 빌렸다.
- ④ 안 초시는 안경화가 청년을 보내자 자신은 ‘땅’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 ⑤ 안 초시는 안경화가 ‘땅’에 투자하기로 하자 자신을 떨시킨 서 참의에게 설욕하겠다고 생각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안 초시가 돈 문제로 인해 딸과 불화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② ㉡: 안경화가 서 참의의 말을 듣고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서 참의가 안 초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안경화를 책망하고 있다.
- ④ ㉣: 서 참의가 안경화가 치르는 장례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⑤ ㉤: 박희완이, 조문객으로서 지나친 언행을 하는 서 참의를 제지하려 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급변하는 시대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구 세대의 대비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구세대의 인물들은 이웃이나 친족 간의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제각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부동산 투기의 바람 속에서 물질적 부를 획득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근대적 인물은 구세대들과 달리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이로 인해 구세대와 갈등을 빚는다.

- ① 안 초시가 딸에게 적극적으로 ‘출자를 권유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구세대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땅값이 올라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일제 강점기에 부동산 투기 바람에 편승하여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안경화가 서 참의에게 ‘제 명예도 좀’ 생각해 달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혈연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생각하는 근대적 인물의 이해타산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영결식장에 모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 하면서 보이는 행동은, 안 초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지키려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⑤ 서 참의가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 보겠’느냐며 탄식한 것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채 딸에게도 홀대받던 안 초시의 처지를 떠올렸기 때문이군.